십자가로 내 마음속 드라큘라들 쫓아내기

(히9:1~22)

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11.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로 내 마음속 드라큘라들 쫓아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드라큘라 쫓아내기'
여러분, 다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십자가로 드라큘라가 쫓겨나는 그런 장면들, 그것도 1편에서 그러고 드라큘라 영화가 계속 되면서부터는, 십자가를 들이대도 쫓겨나지도 않는 그런 강한 드라큘라들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거 뭐 지어낸 얘기지요.
그러나 십자가로 드라큘라를 쫓는 장면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일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하는 사람들이냐? 십자가로 드라큘라 쫓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어디서? 직장에서, 어디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내 마음속 드라큘라를 십자가로 쫓아내는 것이 우리 일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드라큘라를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거만 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 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 언약 중에서 우린 뭐하는 사람이냐? 십자가로 드라큘라 쫓는 자들이다.
그럼 드라큘라가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는, 내 가족 전체가 다 드라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 다 미워하라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다 버리라 그런 겁니다, 마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리라'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십자가로 다 내 마음에서 몰아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조국 아닙니까? 요거 강력한 드라큘라입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내 인생의 꿈과 비전, 드라큘라입니다.
하여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다 드라큘라가 되어버립니다.
왜 드라큘라입니까? 드라큘라가 뭐하는 존재이지요?
흡혈귀 아니에요, 흡혈귀? 피를 빨아 먹는 귀신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대상들이 우리 마음에서 드라큘라 역할을 하느냐, 내 마음의 힘을 다 빼앗아 먹어버립니다.
내 마음의 힘을 흡혈해버린다고 하는 뜻은, 생명을 빨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뭐에요 여러분, 마음을 모두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상태가 이게 바로 생명의 상태입니다,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상태가.
그래서 내 마음은 원래 창조될 때 그 마음에 붙은 의도와 계획이 뭐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의 것이 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의도에 맞는 게 생명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가 만들어진 본래의 의도에 맞게 쓰여 질 때 그 기계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있는 상태가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흡혈귀 드라큘라가 사람의 피를 빨듯이, 목을 깨물어 가지고 사람의 피를 빨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이 다른 대상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이게 바로 원죄의 상태인 거예요.

이 원죄의 상태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의 힘을 빨아들이고 있는 드라큘라가 돼버린 내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마음에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어와 갖고 내 마음의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는 동안에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가 없어요.
배우자의 말만 새겨집니다.
내가 사업을 많이 사랑해서 마음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크게 번창시킬 것인가와 관계된 지침들만 마음에 새겨지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의 행위들이 우리들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피조 된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게 해와 달 일지라도, 해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와 달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들여놓게 되면, 다 흡혈귀로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무기력함을 느낍니까?
의욕도 없고, 마음에 힘이 없어요,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도 없다, 우울하다 그리고 신경질이 굉장히 잦아집니다, 조금만 일만 있어도 거슬리고, 마음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너그럽게 웃으면서 받아질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뭔가 드라큘라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사업하고 장사하는 거 때문에 아주 벅찹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흡혈귀한테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으로 들여놓은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예를 들어, 자식을 들여놨다 그런데 자식한테 무슨 일이 크게 생긴다 그러면, 마음이 덜컹 내려 앉고 손발에 힘이 하나도 없고 주저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그렇게 충격적으로 순간에 임할 수 있지만, 그 흡혈 당하고 있음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 왜 그럴까요?
왜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 받는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것인데 다른 것에 뺏겼어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에 생명을 뺏긴 거예요.
내 마음에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니면 미워하는 것에 뺏겨도 마찬가지에요.
원수를 마음에 들여놓고 미워하고 있어도, 마음의 에너지를 뺏기는 게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서 마음에서 내쫓으라는 얘기지요.
사랑할 때 원수가 내쫓깁니다.

그래서 이 죄악 된 행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좋아해서 집어넣었어요,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또 미워해서 마음에 넣었어요,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려면, 하나님이 좋아야지 말씀에 새겨지는 거예요.
원수가 아주 미울 때, 원수 갚을 수 있는 지침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죽인다든지 무슨 뭐 토막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영화에서 보고는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행위가 나오게 되면 속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런 범죄 행위가 나오게 된 것은, 내 마음에 드라큘라가 들어와 가지고,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내 마음에 들어온 세상 것들이 드라큘라로 변신해 가지고 내 마음을 빨아먹었는데, 마음에 손실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내 마음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것인데 다른 것에 뺏겨서 범죄 행위가 나온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마음이 생명이라면서요, 생명의 근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생명을 뺏긴 거니까, 짐승을 죽여서라도, 그 생명 값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마음에 들임으로써, 생명인 마음을 빼겼기 때문에, 근데 그건 마음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는, 생명 값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뺏긴 만큼의 생명 값을.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다른 짐승의 생명이라도 보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드렸던 제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권능과 권세가 어디 있느냐?
옛 언약의 한계와 부족한 점을 알면 이게 확실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여, 딴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제사 생활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생활을 해 왔지만, 그건 불완전한 것이었고 그 제사의 의미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사건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계가 뭡니까? 제사의 한계가.
그 한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옛날 성전의 구조를 얘기합니다.
성전이 뜰이잖아요 뜰, 뜰이 있었고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일을 하고, 휘장 안쪽으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속죄소라든지 법궤라든지 하는 것들이.
근데 이게 한계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못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 갖고는,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간다 이거에요, 곧바로 간다 이겁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게 속죄제사, 구약의 이 옛 언약 안에서 드렸던 속죄 제사의 한계였다는 겁니다.

무슨 한계입니까?
하나님이 선민을 택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랑 나랑 계약을 맺자, 계약의 내용은 간단하다, 내가 너한테 지시한 말씀, 십계명이나 십계명 정신을 근거로 하고 있는 율법을 생활 속에서 잘 지키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부터, 계약을 체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선민들이 이 계약을 어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법을 어길 걸, 계약을 어길 걸 알고 계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알고 계셨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좋아해서 집어넣고 있는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딴 사람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선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들을 좋아하면서, 아니면 미워하면서 마음속에 집어넣고 마음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 있는 걸,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양심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뭡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양심이에요.
근데,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 가지고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아니 부모가 자식을 마음에 넣고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나라를 사랑한다,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조국을 마음으로 넣고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아니,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열심을 다하고, 마음에 사업을 집어넣고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원죄이거든요.
근데 이 원죄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로 알고 있는 거고, 인지상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 뺏기고 흡혈 당하고 있는데, 생명이 그쪽으로 다 흡혈당하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드라큘라가 내 생명을 뺏어가는 건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로봇이 아니니까 강제로 뭐 다 뜯어서 해체해서 다시 조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이것이 죄인 줄을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옛 언약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마음에 집어넣고 있는데,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마음에 돈을 집어넣고 돈 많이 벌고 싶어 해요.
마음에 가족을 집어넣고는 가족이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거, 부족함 없이 형통하고 명예스럽게 사는 것 이걸 다 좋아하니까, 그걸 내가 줄께!'
이게 옛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대신에 내가 말하는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근데 못 지킬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좋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 말씀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지금 돈을 좋아하고, 사업을 좋아했고, 가족을 좋아하고 있고, 나라의 독립을 좋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 중에서, 자구대로 뽑아가지고 적용하다보면, '어? 내가 돈 좋아하는데, 이 말씀과 일치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새겨지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길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길 걸 아는데, 어길 때마다 죽여 버렸으면, 계약 체결된 대로 죽여 버렸으면 어떻게 선민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속죄 장치를 만들었는데, 단,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못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생령을 흡혈당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드라큘라를 집어넣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성소로 칸을 막아놔 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라큘라 귀신이 들어 있는데, 마귀의 말이 더 강하게 마음에 새겨지는 바람에, 마귀의 말을 듣고는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원수도 집어넣고, 싫다고 판단할 때 원수가 집어넣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원수를 되갚을 것인가 찾다가 마음에 새겨지는 원수 갚는 방법들이 있으

면 그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 뺏기는 거예요.
또 좋은 것들도 마음에 집어넣어요.
이게 다 마귀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꾀는 바람에, 그 마귀의 꼬드김이 깊이 새겨져 갖고 일어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귀의 말이 새겨져 가지고, 마음속에 온갖 마음의 생명들을 뺏어가는 드라큘라를 집어넣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근데, 드라큘라를 집어넣고 있는 상태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왜 계약 체결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주신다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것들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돈이 뭐가 좋아요? 왜 좋아요 돈이? 안 좋은 건데 마귀한테 속아서 좋은 줄 알고 있으니까.
하여간 마귀한테 속아서 좋은 줄 알고 있는 것들을 주겠다고 하시고, 조건은 말씀을 지키라 그러는데 말씀을 못 지켰어요.
말씀을 못 지키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내가 말씀을 못 지킨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내가, 계약을 위반하면서 나 자신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계약위반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죄인으로 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옛 언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만날 수 없게끔 막아 놓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 구약성경에서의 역할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이 조건의 첫째 단계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비로소 죄인이 된 게 아니었구나, 아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들을 집어넣고 있었으니까, 다른 대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행위 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마음으로부터 죄인이었다,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고, 마음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상과 간음하고 있었구나, 추악하고 더럽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옛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뭐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곧바로 만나게 뚫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뭐에요?
행위 하지 마세요.
단 하나의 행위가 우리의 몸과 사지를 통해서 나타나기 이전에,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피조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과 존재 중에,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단 하나의 사건, 단 하나의 존재가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자식도 아니고, 내 인생의 꿈도 비전도 아니고, 조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들여놓는 것, 이게 새 언약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점이에요.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항상 십자가가 기억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 안으로 내 마음을 흡혈하고 싶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대상들이 다 차단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내 재산도 내 사업도 장사도 나라도 내 인생의 꿈도 비전도, 마음 안에 들여놓은 십자가 때문에 다~ 못 들어오고 밖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드라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조 한 존재들로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좋다고 말씀하신 그 존재들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 안으로 들여오면 드라큘라로 변신해요, 내 마음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다~ 밖으로 내몰아놓고 나면 또 내 마음 안에는 깨끗해짐이 형성됩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모든 죄과가 용서받고, 주님의 십자가가 기억되는 동안에 깨끗함이 유지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망각 되잖아요? 곧바로 더러워져요, 곧바로 세상 것이 마음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드라큘라로 변신해 내 마음의 목을 꽉 깨물어 갖고, 내 마음의 피를 또 빨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억 돼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살아 있는 동안에 계속.
그러면 이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뭐하십니까, 성령님이?
'십계' 영화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계명을 받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돌판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하고 막 불이 글자를 막~ 씁니다.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을 때 다른 존재들이 들어와서 드라큘라로 변신하지 못하

고, 성령님이 오시며 이 부분부터 이제 하나님 파트에요.
계약 당사자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행위 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새겨 넣기 시작하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부에 닿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이 사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내 마음에 와서 꽂혀지면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안 지키면 내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더 앞서가고, 더 윗 단계 더 높은 레벨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고, '이제 나를 믿게 되면 새 언약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계약 속에서 너희가 할 바를 다 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때문에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뜻과 계획들을 다 새겨 넣을 것이다.'
당연히 이때,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 등 산상수훈과 같은 주어진 명령들은, 당연히 내 몸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지나서 나만의 특화된 생활 속에서 맞는, 특화된 내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내 생활과 내 처지에 맞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 뜻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새 언약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억함으로써, 끊임없이 마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 마음에 들어와 드라큘라로 변신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내가 사랑할만한 모든 것들을 밖에 머물도록 해라.
그것만 하면, 행위 하나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키셔야 될 계약의 내용들을 실행해 나가실 때에, 내 자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쓰신 대로 말하고 행동할 것이고,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써 주시는 대로 나가서 사업을 하게 될 것이

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참 쉽고 좋고 기가 막힌 이 새 언약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다 걸게 해 주시옵소서.
간단합니다.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나의 죽음의 사건인 것을 인정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억만 하면 되는 것이오니,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속 드라큘라들이 다 쫓겨나가고, 어떤 것도 들어와 드라큘라로 변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